실생활手指鍼 ⑫

가족 건강을 내가 지킨다

權 赫 來
편집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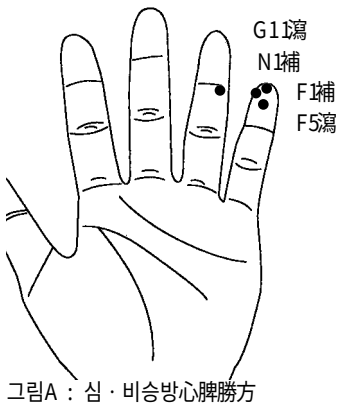
■ 담음痰飮(가래) 치료법

담음(가래)의 본질은 진액津液인데 끈적끈적하고 탁해진 것을 담痰이라 하고 맑고 묽은 것을 음飮이라 한다. 음식(수곡水穀)이 장위腸胃에 들어가서 진액이 되고 다시 풍風、습濕、열熱이 성하거나 칠정七情(희、노、애、락 등 일곱 가지 감정)의 변화 등으로 기氣가 역逆해서 액液이 탁하게 되어 맑고 끈끈한 즙으로 변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담음은 기침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거나(토객상출吐喀上出), 가슴이나 장과 위에 머물거나 경락經絡과 사지四肢에 머물면서 기氣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전신全身 어느 곳이든 무처부도無處不到하면서 괴롭힌다. 그래서 '담음은 어지러운 세상의 도둑'이라고까지 말한다.

담의 증상을 크게 천해喘咳、구토嘔吐、비격痞膈、현훈眩暈、축낙搐搦(사지를 뒤틀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증세)과 꿈에 수시로 귀신을 보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담병痰病에는 원인에 따라 풍담風痰、한담寒痰、습답濕痰、열담熱痰、울담鬱痰、기담氣痰、식담食痰、주담酒痰、경담驚痰、적담積痰 등 10가지가 있다. 그리고 음병飮病에는 유음留飮、벽음癖飮、담음痰飮、일음溢飮、유음流飮、현음懸飮、지음支飮、복음伏飮 등 8가지가 있는데 이는 모두 다음주飮酒와 위한胃寒 혹은 음수飮水의 과다로 인한 것이다. 본란에서는 담음병痰飮病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치료방법을 설명하겠다.

①열담熱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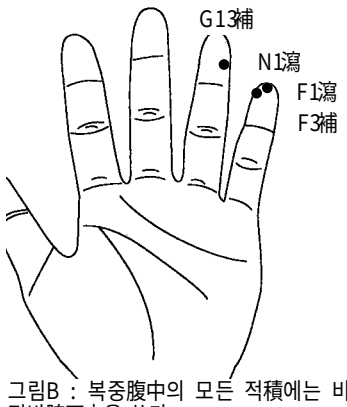
열담은 곧 화담火痰을 말하는데 번열煩熱과 조결燥結이 많고 두면頭面이 홍열烘熱하고 눈이 짓무르고 목이 막히며 미친병과 간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배가 고픈 것같기도 하고 아픈 것같기도 하며 쓰린 것도 같고 가슴이 답답한 것같이 형용할 수 없는 증상이 생기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은 모두 심실心實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림 A와 같이 심、비승방心脾勝方(N1 대돈大敦、F1 은백혈隱白穴은 보補해주고 G11 신문神門、F5 태백혈太白穴은 사瀉해준다)을 자침하면 번열煩熱이 가라앉으며 치유된다.



그림A : 심 · 비승방心脾勝方

②적담積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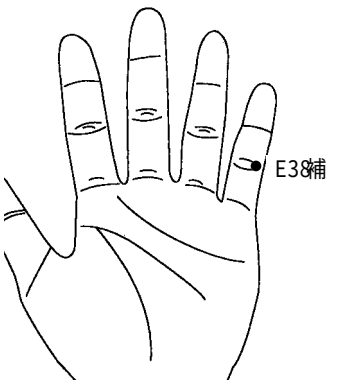
복중腹中, 특히 장腸과 위胃에 담연痰涎이 축적蓄積된 증세로 기침을 하면 요배腰背가 아프고 땅기고 숨이 찬다. 가슴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며 뱃속에서 꿀꿀 소리가 나고 건실한 체격이 점차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비허脾虛에서 생긴 것이므로 그림 B와 같이 비정방脾正方(G13 소부少府、F3 대도혈大都穴은 보하고 N1 대돈大敦、F1 은백혈隱白穴은 사해준다)을 자침하면 곧 증세가 치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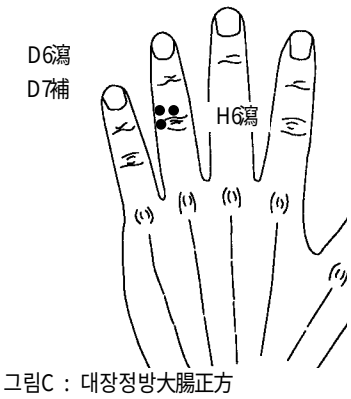


그림B : 복중腹中의 모든 적積에는 비정방脾正方을 쓴다.

③풍담風痰

정신이 어지럽고 민란憫亂하며 혹은 사지가 무력하여 마비증이 있는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다. 담이 맑고 거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반신불수半身不隨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풍필상부증風必傷腑症, 곧 대장大腸이 허해서 생긴 것이므로 그림 C와 같이 대장정방大腸正方(D7 양명陽名、E38 수곡혈水穀穴은 보하고 H6 완상腕上、D6 명양혈名陽穴은 사해준다)을 자침하면 증세가 곧 치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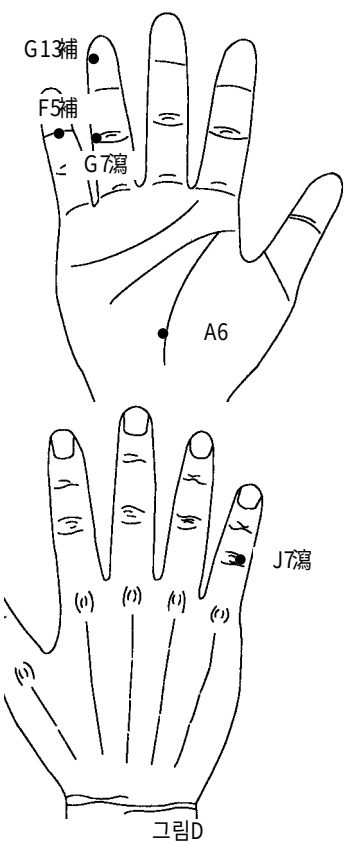




그림C : 대장정방大腸正方

④현음懸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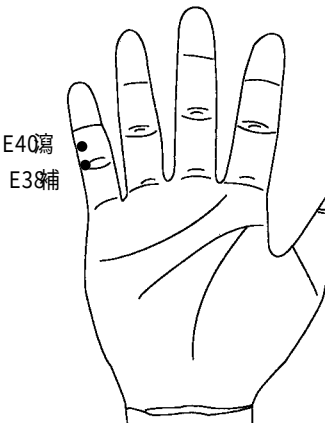
심복心腹에 기가 체하거나 갈빗대 밑에 물이 머물러서 꼴꼴 하는 소리가 나며 가래가 많이 나오고 갈비뼈에 통증을 나타내는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심과 비(심비心脾)가 허해서 생긴 것이므로 그림 D와 같이 심과 비를 보하는 처방(G13 소부少府、F5 태백혈太白穴은 보하고 G7 소해少海、J7 음곡혈陰谷穴은 사해준다)을 자침하면 이 증세가 곧 치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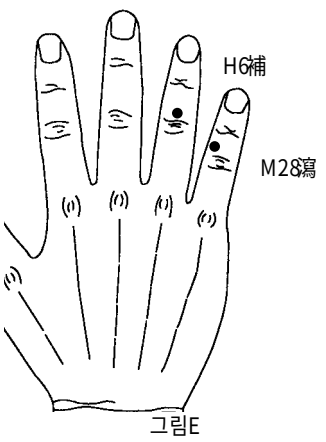


그림D

⑤유음留飮

몹시 숨이 가쁘고(기단氣短) 갈증이 나며 사지의 관절과 갈비뼈가 아프고 해수가 심해지는 증세이다. 이 증상은 위의 기능이 허해서 생긴 것으로서 그림 E의 위정경의 변방으로서 E38 수곡水穀、H6 완상혈腕上穴은 보하고 E40 풍기豊氣、M28 골주혈骨柱穴은 사해주는 처방을 자침하면 이 증세가 곧 치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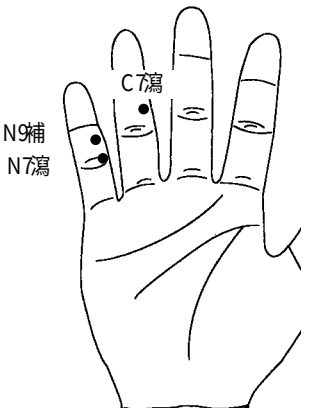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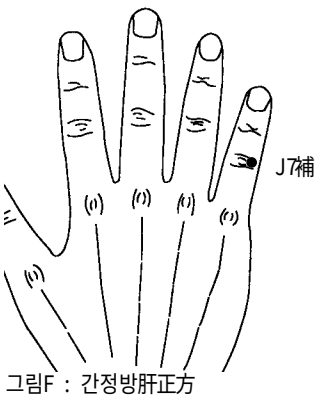


그림E

⑥지음支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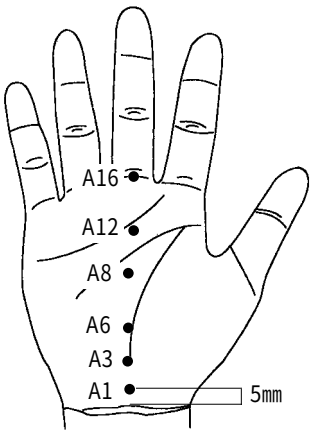
기침이 역상逆上해서 숨쉬기가 가쁘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통증이 심하고 무릎 등 수족이 뻣뻣하며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고 잠이 많고 어지러우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변비가 생기는 증세이다. 이 증상은 풍風、한寒、습濕이 담연痰涎과 숙음宿飮으로 인한 병으로서 간肝의 기능이 허해져서 생긴 것으로서 그림 F의 간정방肝正方(J7 음곡陰谷、N9 곡천혈曲泉穴은 보하고 N7 중봉中封、C7 경거혈經渠穴은 사해준다)을 자침하면 이 증세가 곧 치유된다.





그림F : 간정방肝正方

이상에 열거한 처방을 쓰더라도 효과적으로 담음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조절하여 원기를 회복시키는 처방을 병행해서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바닥 중앙으로 흐르는 임기맥의 A1、3、6、8、12、16、33혈에 서암뜸을 매일 떠주는 것이 좋다.



여기에 서암뜸을 뜨면 원기가 좋아진다

10면에서 계속

승만의 외교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는 1949년 1월 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조공을 바친 우리 땅이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이 그 땅을 무력 강점했지만 결사 항전한 (대마도) 의병이 이를 격퇴했고 의병전적비義兵戰蹟碑가 대마도 도처에 있다. 대마도 도주島主 종씨가문宗氏家門은 조선에서 대대로 벼슬을 했고 토질이 척박하여 조공무역으로 연명하면서 조선의 정치경제권에 있었다. 또 1870년대에 대마도를 불법으로 삼킨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서 불법으로 소유한 영토를 반환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승만은 한일국교 재개를 언급하면서 대마도 문제를 지렛대로 했다. 미국대사 양유찬을 시켜 대마도가 한국령임을 전승국의 리더 미국에 강력히 주장케 하여 외교 역량을 발휘했던 기록이 밝혀지기도 했는데 이는 우리에게는 국가운영 방법을 제시해주는 본보기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실효적 지배에 무게를 두고 국제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조용한 대처로 일관하다가는 삼인작호三人作虎라는 말처럼 '독도(한국령)'이라는 말이 고문서에만 남고 지구상 모든 나라의 학생이 보는 신판 지리부도에는 '리앙쿠르암석(일본령)'으로 표기되는 때를 맞게 되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려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간 소극적으로 문제부제기적 問題不提起的 방어를 취하기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 민간차원의 조용하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일본이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 꼬투리를 미연에 없애야 할 것이다.